

찬송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바치는 예배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거룩한 주님께

Capo=3rd
J. S. B. Monsell, 1863
조급 빠르게 ♩=104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시 29:2)

MONSELL:12.10.12.10.
W. F. Sherwin, 1887

1.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2.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3. 주 앞에서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4.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배도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주님을 찬양한 우리를 도우시네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금같은 복종과 기쁜 겸손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엔 사랑을
배운 밤 지나고 새 아침에
찬양과 경배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주님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찬양과 경배



나는 얼마 전 경주에서 열렸던 전국장로수련회 개회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요사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사천여명의 장로들이 모인 집회의 개회 오프닝에 제각기 편한 차림의 복장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들은 흔히 TV의 오락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단정치 못한 연예인의 모습이었다. 단추를 풀어헤친 셔츠에 헐렁한 조끼를 열어 제치질 않았나, 소위 도리우치로 불리는 납작모자를 쓰고 있질 않나, 운동화를 접어신고 다리털이 송송 내보이는 반바지 차림에 건들거리며 마구잡이식으로 건반을 두드리질 않나...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정장을 하고 경건히 앉아있는 앞에서 말이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어른들 앞에서라도 그런 복장과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바람직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차림부터 경건해야하지 않겠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Coram Deo)이란 생각을 망각하곤 한다.

며칠 뒤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2010 장로교의 날’ 설교를 맡은 이종윤 목사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나 타 종교의 발흥이 아니라 세속화라고 지적하며 예배가 노래방 수준으로 타락하고 교회문화가 세상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개탄하였다. 예배의 위기를 맞은 이 때 우리 장로들은 올바른 예배철학을 가지고 개 교회에서 예배를 지켜 나가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다윗도 시편 29편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국교회 문셀(J.S.B.Monsell, 1811-1875)목사가 이 찬송시를 썼다. 원래 1월 6일에 지키는 주현절(Epiphany)용 찬송으로 지어 찬송집(Parish Hymnal, 1873)에 발표하였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에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자는 뜻에서 지은 찬송이다. 미국 작곡가인 셔윈(W.F.Sherwin, 1826-1888)이 작곡한 작사자 이름인 MONSELL이란 이름의 이 멜로디는 1884년에 출간된 미국찬송가(Laudes Domini)에 처음 수록되었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삼가서,” “떨면서 바치는” 같은 단어가 마음에 닿는다. 특히 9째 마디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에선 ‘미레도 솔솔’ 순차진행으로 하행하다 ‘순종’과 ‘겸손’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가사의 어화(語畫, word painting)를 잘 나타내고, 5째 마디에서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의 멜로디가 ‘도시도 레도레 미레미파’하며 순차진행으로 상승한다든지, 13마디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에서도 ‘라라시도도레미’ 상승하는 것이 주님께신 보좌 앞으로 한발 한발 다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모범적인 예배찬송이다.